

“이 시간 이 자리가 모두 만다라”

정리=박재완 기자 wanihollo@hanmail.net

2018 만다라 결산

2018년 한 해 동안 본지의 ‘만다라’에 소개된 주인공을 한 자리에 모셨다. 한 분 한 분 그 자체로도 충분한 만다라이지만 한 자리에 함께 하니 그야말로 ‘만다라’가 되었다. 만다라의 의미를 새삼 깨닫고 새기는 자리다. ‘2018년’이라는 한 편의 만다라를 회향하는 오늘, 다시 한 분 한 분의 지나온 자리를 되짚어 ‘2019년’이라는 또 한 편의 만다라를 준비한다.

〈편집자 주〉

윤후명 작가(72 · 시인 · 소설가)

-‘나’를 찾아 나선 문학 50년 … “불교는 우리의 이성이자 정체성”-

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설가의 문학 속에서 화자의 자아로 살아왔다면 그 불교는 어떤 것일까. 시인이자 소설가인 윤후명 작가는 “나의 소설은 모두 불국토를 향한다”고 말한다.

김성규 교수(62 · 영남대 의과대학)

-대의왕 제자 인생 40년, 身心의 병을 살피다…“佛法은 마음의 암 치료하는 방사선”-

그는 방사선종양학 전문의로서 암 치료에 평생 진력했다. 아울러 육신의 병 못지않게 중생을 괴롭히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20여 권의 우리말 경전을 출간하는 등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진력하고 있다.

이학송 前 교법사(59 · 생명의 숲 국민운동 전문위원)

-청소년전법제일 부루나 존자 … “교육 불사가 곧 불교 ‘미래’”-

전법은 미래를 위한 일. 그 ‘미래’를 위해 단단한 원력을 품은 부루나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. 그의 전법지는 ‘청소년.’ 군법사와 교법사로 활동하며 오랜 세월 교직에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불심을 심고자 진력해온 이학송 前 교법사다.

박정이 예비역불자연합회 회장(前 육군대장)

-‘하심’으로 리더십, ‘소통’으로 일치단결-

평소 철저한 자기관리와 리더십으로 유명한 그의 생활에는 불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수행이 있었다. 40년 가까이 군에 복무하며 국가안보 일선에서 활약한 박 회장은 불자로서 ‘하심’의 리더십을 강조한다.

이연욱 불화장(62 ·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7호)

-불보살과 함께 한 반세기, 천상 佛母 … “불모는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서원”-

무엇인가를 그리는 일, 그것이야말로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일의 시작이 아닐까. 그는 40여 년 동안 불보살을 그리며 부처님 세상에서 살고 있다. 5천여 폭의 불화를 3백여 사찰에 남겼다.

BTN불교TV 염불공양회

-시다림 염불공양, 보살 닮아가는 길 “오직 영가 왕생을”… 염불행자의 간절한 서원-

1년에 200여 회 시다림 봉사를 하며 불법의 요체인 생사의 의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이들이 있다.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‘BTN불교TV 염불공양회’다.

태고보현봉사단

-자리이타로 제주불교 이끄는 자비보살들 - “봉사는 번뇌 물리치는 수행”-

제주도를 불국정토로 만들겠다는 원력으로 모인 이들.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(종무원장 · 지원) 산하 봉사신행단체인 태고보현봉사단이다.

최기영 대목장(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·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)

-전통건축의 살아있는 ‘계보’…“언젠가 내가 들어와 살지도 모르죠”-

현대식 공법의 건물들이 대세인 오늘날, 나무를 손수 다듬고 기와를 얹어 집을 짓는 일이 여전히 가치 있는 일임을 확신하며 우리 건축을 잇고 있는 목수, 최기영 대목장. 그는 60여 년 동안 전국에 수 백 채의 불사를 남겼다.

선진규 법사(84 · 봉화산 정토원 원장 · 만해사상실천연합 대표)

-포교 또 포교, 여래의 심부름꾼 / 청소년부터 만해까지… 포교불사 60년 매진-

부처님의 심부름꾼을 ‘여래사(如來使)’라고 한다. 그리고 부처님의 심부름이란 전법포교의 공덕을 말한다. 우리는 이제 그를 여래사라고 불러야 한다.

김민희 나무명상 대표(63 · 울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 고문)

-“오로지 전법”… 울산불교 재가운동 大母, ‘3 · 3 · 3’으로 자기 단속… “수행은 나의 힘”-

울산 태화강 옆에서 나무명상 카페를 운영하는 그는 울산이 불법의 숲이 되길 기원하며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.

한금순 제주대 외래교수(58 · 제주불교 전문 연구가)

-“4.3민중과 함께 한 스님들, 참 종교인 모델”-

올해로 70주년을 맞는 제주 4.3항쟁에서 불교계의 피해와 희생이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제주와 불교에 대해 끊임없이 천착했던 연구자가 있기에 가능했다. 바로 한금순 교수이다.

한승원 작가 (79 · 소설가 · 시인)

-불교로 소설 쓰다 소설로 불교 썼다 … “부처님은 제 영혼의 스승이죠”-

등단 50년, 그는 이제 삶과의 이별도 서서히 준비한다.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. 이별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는 삶은 어떤 것일까. 그렇게 그의 글은 쉼 없는 성찰의 회향이다. 그 성찰은 그의 문학 50년의 변함

B2면에 계속

INSIDE

B3
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
선원총림의 한 해 일정

B5
문화
특별전 'Mandala Festival of Art 魂'

B6
학술 · 문화재
2018 학술 · 문화재 결산